



##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장관급 중소기업전담부처 설치 건의

협회를 포함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이하 '중기단체협의회')는 공동으로 "장관급 중소기업 전담부처의 설치"를 7일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에 건의했다. 중기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안윤정), 벤처기업협회(회장 백종진) 등 13개 주요 중소기업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7대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 "장관급 중소기업 전담부처의 설치"가 반영되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가 공동으로 건의하게 된 것이다.

중기단체협의회는 건의 자료에서 많은 중소기업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만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장관급의 전담부처 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정부의 지원체계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차체에 "장관급 중소기업전담부처"를 설치해 줄 것을 제17대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한편 16일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부처개편안에서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폐지되고 중소기업청은 존속, 중소기업에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 협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간담회 가져

협회 백종진 회장은 15일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차기정부에 벤처기업의 성장 토대마련을 건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는 인사말을 통해 "98년에서 2005년 사이에 대기업은 고용이 76만명 감소했다. 그런데 벤처기업은 26만명 증가해서 많은 고용 증가에 기여를 했고, 매출 1000억 넘는 기업체가 100개 이상으로 큰 희망을 줬다"며 벤처기업의 공로를 평가하였다.

이에 백종진 협회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10만개 벤처기업과 100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 수출 1000억달러 등 '10·100·1000'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차기 정부의 '747' 공약을 위해서도 신기술과 첨단기술의 주체인 벤처기업이 그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인들은 또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과 투자환경, 정책건의 등 항목별로 업계 의견을 모아 인수위에 전달했다. 이에 인수위는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희영 NHN 대표, 전하진 INKE 대표, 우성화 티켓링크 대표, 김태희 케이블스 대표, 김병기 지오인터렉티브 대표 등 주요 벤처기업인과 배희숙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 18명이 참석했고 인수위측에서는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위원과 윤수영 전문위원, 배은희 자문위원, 이기우 자문위원 등 9명이 참석하여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 2008 벤처업계 합동 신년하례회 개최

협회는 17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새해를 힘차게 여는 "2008 벤처업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산자부 김영주 장관, 중기특위 노준형 위원장, 중소기업청 이현재 청장, 한이헌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박성신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 장지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정부 측 인사와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벤처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국가 성장동력으로써의 벤처의 역할을 치하하고 더 큰 발전을 기원하였고, 참석한 벤

처기업인들 역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환담을 나누었다.

이번 신년하례회는 2006년 이래 3년째 협회, IT벤처기업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의 다섯 개 벤처 대표 유관기관이 함께 개최, 벤처업계의 공식행사로 자리잡게 되었다.



## SM, 이웃돕기 성금 전달

서울벤처인큐베이터는 지난 12월 6일 벤처인의 밤 행사에서 경매와 물품판매, 모금을 통해 마련된 백여만 원을 12월 28일 서울SOS어린이마을에 전달했다. 또한 각 임직원들이 기증한 물품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탁했다.

성금이 전달된 서울SOS어린이마을은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기관이다. 특히 이번 기부금 전달 인연으로, SM 입주기업인 (주)헬스피아, 애드써커뮤니케이션(주), 넷다이버(주) 3개 기업은 서울SOS어린이마을의 고3학생 두 명을 대상으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직장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미니워크샵 및 사업계획서작성, 시간관리교육, 정보분석 등의 일을 배우며 직장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으로, 1월 21일부터 2월1일까지 세 기업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SM 입주기업대표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CEO클럽에서도 봉사모임 '이사봉(씩씩달 4주차 토요일 봉사모임)' 을 결성하여 2월 1일 발족식을 앞두고 있다.



## 아르헨티나 과학·기술 벤처연구소(IECyT)와 업무협약 체결

협회는 아르헨티나의 과학·기술 벤처연구소(IECyT: Instituto de Emprendimientos Científicos y Tecnológicos)와 양 단체 회원간 기술교류·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1월 21일(아르헨티나 현지시각), IECyT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양 단체는 그동안 이번 협약을 위해, 회원간 교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소속 회원사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기술협력, 상호 투자 등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교류, 인력 개발 및 프로젝트의 공동 육성과 정기협의 등 향후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 기업인간의 국제포럼 등을 개최하여

기술관련 기업간의 연구개발과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백종진 협회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인하여 경제 규모와 발전가능성에 비해 지금까지 한국기업의 진출이 저조하였던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남미지역에 국내 벤처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면서, "특히 남미지역은 관세장벽이 높아,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이 효과적일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IECyT(대표 Mr. Enrique Draier)는 2003년 'Institute of Argentine Scientific Society' 로 설립되어 2005년 비영리단체인 IECyT로 출범하였으며 아르헨티나 내의 과학 및 기술관련 업계의 대표적인 민간 협력단체로, 아르헨티나 내의 과학기술관련 프로젝트 개발 및 인재육성과 교육사업 뿐 아니라 다수의 해외 협회 및 기관, 대학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SDV TOP100 CEO' 시상식

새로운 벤처기업의 집적단지로 자리잡은 서울디지털밸리의 우수기업과 기업인을 치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월 24일 서울 독산동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협회와 글로벌 뉴스네트워크 에이빙(AVING)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 주최한 제1회 'SDV(seoul digital valley) TOP100 CEO' 시상식이 개최된 것.

'SDV TOP100 CEO' 시상식은 서울 구로구-금천구에 걸쳐 형성된 서울디지털밸리 내 입주한 8,000개 기업 중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 기업, 또는 서울디지털밸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최고경영인 100인을 선정, 발굴해 시상한다.

이 날 행사는 협회 전대열 부회장, 에이빙 김기대 발행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조보훈 부이사장의 환영사 및 양대용 구로구청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서울디지털밸리를 빛낸 CEO 100명 및 특별상 7명, 공로상 3명이 수상했다. 협회가 선정한 특별상은 엽슬루트코리아(주) 이태화 대표와 (주)코리아퍼스트 장영규 대표가 수상했다.

에이빙이 선정한 특별공로상은 진기우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장, 김주택 서울디지털밸리 1단지 기업인연합회장, 홍남석 서울디지털밸리 2·3단지 기업인연합회장이 수상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선정한 특별상은 성장성 부문에 오스템입플란트(주) 최규옥 대표, 기술혁신 부문에 (주)한국하이네트 변일석 대표, 해외시장개척 부문에 (주)씨앤비텍 유봉훈 대표, 고용창출 부문에 (주)비유와상징 양태희 대표, 지역발전기여 부문에 (주)손오공 최신규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